

생태 · 환경 목시록

글 | 박이문 _ 연세대학교 철학과 특별초빙교수 ynhui@hanafos.com

환 경은 언제나 생명의 환경이다. 생명이 없는 곳에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의 객관적 의미는 한 생명의 뿌리이자 양식이며, 자연적 및 문화적 조건이자 그것의 일부이다.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 한 생명은 번영하고 행복할 수도 있고 몰락하고 소멸할 수도 있다. 환경의 좋고 나쁨은 생명체의 종과 개체에 상대적이다. 모든 생명, 모든 인간이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찾고 만들어가려는 것은 자연의 필연적인 이치다. 맹모삼천지교가 이런 사실을 입증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전지구적인 생태 · 환경문제

각 국가, 도시, 마을, 개인은 오늘날까지 항상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고 개량하면서 문명과 문화를 일구며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2004년 동남아 푸케트 휴양지를 덮친 쓰나미나 몇 달 전 미얀마의 비참한 사이클론, 중국의 쓰촨성을 통째로 뒤엎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대지진이 보여주었듯이 자연적 파괴에 직면하는 일도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의 급속도의 산업화, 폭증하는 인구에 의한 폭발적 소비, 자연자원의 고갈, 지구온난화, 공기오염, 그러한 현상이 동반하는 문화적 갈등, 도덕적 해이, 사회적 불평등,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제3국가의 늘어나는 주민 수, 부단한 무력적 갈등,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악화되는 인위적 파괴도 심각해지고 있다.

1962년 레이첼 카슨이 자연이 화학농약에 의해 오염되어 봄이

오고 얼음이 녹아도 개천에서는 물고기가 놀지 않고, 싹이 트고 꽃이 피어도 산과 들에서는 새들이 노래하지 않는 ‘조용한 봄’으로 자연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고발한지 벌써 반세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1992년 헤레나 노르베리-호지가 ‘오래된 미래’를 통해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무자비한 자연개발과 문명이라는 명목으로 평화롭고 행복하며 선한 전통사회를 쓰나미처럼 덮쳐 그것을 문화적 대지진으로 붕괴시키는 서구 과학기술문명을 고발한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환경과 생태계에 관한 수많은 저서가 출판되었고, 적지 않은 학회가 열렸고, 수많은 환경단체가 생겨났다.

그런데도 발전, 국가경쟁, 선진국진입, 번영이라는 구호 밑에 한 반도에는 하루가 다르게 수 많은 고층아파트, 공장, 관광단지가 건설되고, 수많은 새로운 고속도로를 위해 산과 들을 뚫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전국 각지에서는 날마다 수많은 축제로 노래와 잔치가 벌어지고, 매년 몇 백만 명의 한국인이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지를 누비며 유희, 골프, 쇼핑 관광에 나선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가 대동소이하다. 온 생명체의 환경이 파괴돼가고 있다. 생태 · 환경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이며 지구적으로 함께 대처해야 할 과제다.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하면 서울 북판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고층 아파트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고전음악을 듣거나, 비싼 레스토랑

랑에서 스테이크를 자르다가도, 편안한 잠자리에 있다가도 아찔한 악몽을 꾸듯 벌떡 일어나게 되며, 문명의 종말이라는 낱말이 머릿속에 아찔하게 떠오른다. 그럴 때면 앞이 캄캄해지고 망연자실해진다. 정말 문명의 종말이 왔단 말인가? 진정 문명의 붕괴, 인류의 죽음, 세상의 종말이 오고 있는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가? 요한의 '묵시록'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인가?

인간의 자율적 선택과 신속한 행동으로 위기 극복

헤겔과 테이아르 드 샤르댕의 철학은 역사의 필연적인 완성인 동시에 종말을 주장한다. 맥스웰의 물리학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열역학 제2 법칙-엔트로피의 원리에 따라 처음부터 해체의 과정에 있으며 언젠가는 완전히 증발하고 만다고 주장한다. 첨단 천체 물리학자 조지 가모브는 우주는 극미한 물체의 빅뱅, 즉 대폭발의 산물이며,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다시 응축해서 무에 가까운 미세한 물질로 환원된다는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것을 운명의 소관으로 받아들여, 문명과 인류의 종말을 위협하는 생태·환경을 그냥 가만히 앉아 절망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함축하는가? 오늘날 인류가 처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이데거의 말대로 “오직 신만이 구할 수 있다”고 운명론적 혹은 절망적 대답밖에 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설사 물질, 생명, 인간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포함한 우주전체의 종말론이 객관적 사실이라 해도 우리는 진화 분자생물학자 자크 모노의 표현대로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의무는 어느 곳에도 쓰여 있지 않다. 인간은 혼자 힘으로 왕국과 암흑의 나라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의 표현대로 “인간의 유일한 특징은 자유롭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문명과 자신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생태·환경 파괴의 극복 문제가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현명한 자율적 선택과 신속한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이며, 오늘날의 생태·환경의 위기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망적이지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설사 요한의 '묵시록'이 말하는 종교적 예언, 헤겔과 테이아르 드 샤르댕의 철학적 주장, 맥스웰의 물리학이 말하는 엔트로피 이론, 대폭발 우주론이 주장하는 우주 종말론의 진리 즉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반드시 소멸됨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 남아야 하며 한 순간이라도 더 우리의 삶을 연장하고 풍요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폭력(ahimsa)과 금욕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 인도의 전

통사상 자이나교는 '다시 태어나지 않음(moksha)'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둔다. 삶이 곧 고해이며 궁극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따지고 보면 삶 이상으로 더 중요한 가치는 생각할 수 없고, 삶 가운데서도 인간의 삶보다 더 귀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 특히 인간의 삶, 정확히 말해서 인간의 의식이라는 주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존재나 상황도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살아있는 의식은 모든 것의 원천이며, 또한 바로 그런 점에서 생명의 토양인 자연 및 문화적 생태·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내일 우주가 자신의 무대의 막을 내리고 내일은 해가 뜨지 않는다 해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며, 인간이 눈을 뜨고 있는 한 우리의 시계바늘은 아직도 25시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희망은 아직도 있다.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문제해결 출발점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첫째, 생태·환경 위기의 심각한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다. 다시 한 번 키슨의 '조용한 봄'이나, 노드베리-호지의 '오래된 미래'와 같은 감성적으로 피부에 닿는 책들이나 모노의 '우연과 필연'이나 윌슨의 '창조'와 같은 좀 더 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책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위와 같은 책들이 제기한 지구차원에서 생태·환경 위기의 징조를 다양한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많은 책들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기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구체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왔고 또 현재도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 일상적 생활방식이 생태·환경에 관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인식하고 주장하는 것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부터 문제가 많다고 믿는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셋째로 문명, 자연, 지구의 중병으로서의 생태·환경 위기에 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즉 과학적 진단이다. 어쨌거나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생태·환경 문제의 해결의 첫 단추는 개발과 경쟁, 문명과 진보의 국지적, 외형적 화려한 환상에서 깨어나 현재 인류는 지구적, 세계적, 문명사적, 인류만이 아닌 생태계의 차원에서 묵시록적 상황에 있음을 비장한 마음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불문과 졸업 후 프랑스 소르본대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보스턴, 시몬스 대학 및 포항공대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특별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